

2012년 4월 제1호

재 정 동 향

목 차

I. 국제기구	2
II. 호주(Australia)	5
III. 캐나다(Canada)	6
IV. 프랑스(France)	9
V. 독일(Germany)	10
VI. 그리스(Greece)	12
VII. 아일랜드(Ireland)	13
VIII. 이탈리아(Italy)	15
IX. 일본(Japan)	16
X. 포르투갈(Portugal)	17
XI. 스페인(Spain)	19
XII. 영국(UK)	21
XIII. 미국(US)	23

요 약

- 2012년 3월 하반기, EU, OECD등의 국제기구와 주요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들의 재정동향을 조사함
 - 새로 추가된 PIIGS 국가들은 2012년 1-3월 기간의 재정동향을 조사함

-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는 2012년 예산을 발표함
 - 캐나다는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을 주요 기조로 하는 FY2012-13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2)을 하원에 상정함
 - 영국은 경기 안정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간소화된 조세제도, 성장을 위한 개혁을 주요 기조로 하는 FY2012-13 예산안을 발표함
 - 아일랜드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대비 3%로 감소시키고,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고용, 정부정책 개혁 등을 주요 기조로 하는 2012년 예산을 통과시킴

- 독일은 2012-2016 중기재정계획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2년 잠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와 관련해 EU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5.3%로 조정함(5.8%→5.3%)

-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는 국제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아일랜드는 예산절차를 개혁하고자 함. 스페인은 공공부문 재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I. 국제기구

1. EU

- (스페인) 스페인 재정적자 목표 상향조정에 대한 유로존의 의견대립(4.4%→5.8%)
 - 유로존 주변국은 스페인의 재정적자 상향 조정을 용인
 - 핵심회원국(AAA등급국가)은 스페인의 재정적자 상향 조정을 반대
- (헝가리)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헝가리에 유럽개발기금 4억 9520만 유로 지원 보류 결정
 - 재정적자 규정 위반(EU 기준치 GDP 대비 3% 초과)
 - 향후 3개월간 재정적자를 EU 기준내로 줄일 방안을 마련하여 6월 22일 재평가
- (EU 재무장관 회의) 유럽 방화벽 확대 집중 논의(3.30)
 - 유럽 재정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구제금융 기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9400억유로로 늘리는 방안

2.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로존(Eurozone)에 구제금융 기금 규모를 1조 유로로 늘릴 것을 촉구
 -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유로존(Eurozone) 재정 취약국의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간 유로존(Eurozone) 구제기금의 규모가 1조 유로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
- OECD, Interim Outlook 발표(3.29)
 - 지난 3월 29일 발표된 OECD의 중간 경제전망(Interim Outlook)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G7 국가의 경제는 지난 11월 Economic Outlook에서 전망한 수준 대비 개선될 것으로 평가

- 다만 경제지표들은 경제회복이 아직 불안정한(fragile)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
- 최근 유가 상승은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노동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하락하고 고용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유로의 경우 평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표 1〉 주요국의 경제전망

(단위: GDP 성장률, %)

	10 Q4	11 Q1	11 Q2	11 Q3	11 Q4	12 Q1	12 Q2
United States	2.3	0.4	1.3	1.8	3	2.9	2.8
Japan	-0.6	-7	-1.3	7.1	-0.8	3.4	1.4
3 largest Euro countries	1.5	3.6	0.8	1.2	-0.8	-0.4	0.9
Germany	1.9	5.5	1.1	2.3	-0.7	0.1	1.5
France	1.6	3.5	-0.1	1.3	0.6	-0.2	0.9
Italy	0.7	0.5	1.2	-0.7	-2.6	-1.6	-0.1
UK	-2	1	-0.2	2.3	-1.2	-0.4	0.5
Canada	3.1	3.7	-0.6	4.2	1.8	2.5	2.5
G7	1.4	0.2	0.6	2.6	1.1	1.9	1.9

주: 3 largest Euro countries는 유로지역 3대 국가의 가중평균(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개별 국가의 경제전망을 보면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경제회복이 보다 확고해 지는 반면 유럽의 경우 취약한 상태를 보이는 디커플링이 진행될 것으로 진단
 -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신흥국의 경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 성장률은 약화될 것으로 평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구조개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조개혁 시행에 따른 잠재적 이득이 상당함을 강조
 - 재정건전화는 개별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지속될 필요
 - 미국의 경우 2013년 중 세금인하 종료 및 지출 삭감 등에 따라 급격한 재정 긴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한편 유로지역의 경우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구조적인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

- 주요 OECD 국가들은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하는 가운데 양적완화조치 등을 통해서도 경제를 지지할 필요가 있음

II. 호주(Australia)

1. 예산·결산 등

2. 기타

□ 호주정부는 퇴직연금의무적립금을 현행 임금의 9%에서 12%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발표함(3.20)

○ 퇴직연금의무적립금 비율을 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9년 7월 1일까지 12%로 점차 증가시킴

- 840만 호주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퇴직연금의 연령 제한을 폐지

- 70세 이상인 약 51,000명이 새로운 법안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

〈표 2〉 호주의 퇴직연금의무적립금 비율 추이

	FY13-14	FY14-15	FY15-16	FY16-17	FY17-18	FY18-19	FY19-20
인상율	0.25%	0.25%	0.5%	0.5%	0.5%	0.5%	0.5%
적립비율	9.25%	9.5%	10%	10.5%	11%	11.5%	12%

□ (여론)

○ 야당지도자인 토니애봇은 광물자원임대세를 통한 세금절감(tax cut)이 퇴직연금 증대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 녹색당의 밥 브라운 대표도 광물자원임대세로 소기업 법인세 감면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표 3〉 호주 내 각 당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입장

	노동당	녹색당 (밥 브라운)	자유국민연합(토니애봇)
주장	· 광물자원임대세 ¹⁾ 지지 · 임대세의 세원으로 법인세 30%→29% 인하	· 광물자원임대세 지지 · 법인세 소기업만 인하 · 대기업 법인세 인하 반대	· 광물자원임대세 반대 · 모든 기업 법인세 인하 반대 · 광산세를 내는 기업의 세금 감면(tax cut) 주장

1) MRRT(Minerals Resource Rent Tax) 2011.11.23 하원통과, 2012.3.19 상원통과, 2012.7.1부터 발효예정

Ⅲ. 캐나다(Canada)

1. 예산·결산 등

□ 연방정부 FY2012-13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2) 하원 상정(3.29)

- (예산기조) 2012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세계 경기불안에 대응하고자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을 주제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에 주력
 - 비즈니스 혁신 및 기초연구분야 지원 확대
 - 국제무역관계 지원 등 더 나은 비즈니스 투자환경 구축
 - 고용 인센티브 강화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로 고용창출 지원
 -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련 세제혜택 확대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

〈표 4〉 캐나다 2012년 예산안(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예산)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2011-12	2012-13	2013-14	합계
비즈니스혁신 및 기초연구분야 지원(Supporting Entrepreneurs, Innovators and World-Class Research)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255	171	426
연구,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200	141	341
투자환경개선(Improving Conditions for Business Investment)				
책임자원개발(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78	87	165
천연자원 투자		136	-24	112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관계 지원		43	47	90
농어업 종사자 경제여건 개선 등		41	10	51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 시장 참여기회 확대 지원(Investing in Training, Infrastructure and Opportunity)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51	186	40	277
고용보험사업 개선		177	305	482
원주민의 노동시장진입 기회 확대 등		97	133	230
사회기반시설 강화		150	124	274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건강 및 안전 보장		37	37	73
지역사회 투자 등		232	211	443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29	32	60
합계	51	1,659	1,313	3,023

자료: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2(2012.3.29), Table 3.0

- (경제전망) 2013년 실질GDP성장률은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2011년 11월 전망치 수준보다 0.1%p 감소한 2.4% 전망

〈표 5〉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실질GDP 성장률	2011년 예산안	2.9	2.8	2.7	2.5	2.5	2.4	2.6
	2011년 11월 조정	2.2	2.1	2.5	2.5	2.5	2.3	2.4
	2012년 예산안	2.5	2.1	2.4	2.4	2.4	2.2	2.3

자료: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2(2012.3.29), Table 2.1

- (재정전망) FY2012-13 재정수지는 -249억 캐나다달러(GDP대비 -1.2%수준)로, 경기회복과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FY2015-16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표 6〉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총세입	14.6	14.4	14.3	14.6	14.7	14.8	14.8
프로그램 지출	14.7	14.1	13.8	13.4	13.1	12.9	12.7
이자지출	1.9	1.8	1.8	1.7	1.8	1.8	1.8
재정수지	-2.1	-1.5	-1.2	-0.6	-0.1	0.2	0.4

자료: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2(2012.3.29), Table 6.4

- (세입전망) FY2012-13 세입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550억캐나다달러(GDP대비 14.3%)로, 향후 5년간 연평균 4.7% 상승 전망
- (세출전망) FY2012-13 총지출은 2,453억캐나다달러(GDP대비 13.8%)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관리와 더불어 개인 대상 이전지출을 삭감하지 않도록 주력
- (주요정책) 2012년 예산안은 장기재정 측면에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향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처별 지출관리 결과를 보고
 - 지속가능한 복지
 - 노령연금 및 소득보장지원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수혜기준연령을 2023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캐나다 정부가 2011년 11월 제정한 공동출자공인연금법(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 Act)에 따라 향후 근로자 등의 퇴직소득 확대
- 재정건전화
 - FY2011-12 부처별 지출관리로 인하여 2012년 예산안 작성시점 기준으로 약 52억캐나다달러를 절감
 - 불필요한 지출절감 노력으로 FY2016-17에 연방정부 프로그램 지출의 약 2% 수준 절감 계획

2. 기타

□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 2012년 예산안 상정(3.27)

- (재정건전화) FY2017-18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중복 사업 정리, 공공부문 급여 상승폭 제한 등으로 향후 3년간 프로그램 지출 177억캐나다달러 절감 조치
- (경기부양) 온타리오주 전 유치원 종일반 수업 실시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시스템을 정비하여 경제성장 기반 구축

□ 퀘벡(Quebec) 주정부 FY2012-13 예산안 상정(3.20)

- (재정건전화) FY2012-13 퀘벡 주정부 예산안은 각 부처별 지출 증가 억제로 FY2013-14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에 주력
- (경기부양) 경력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천연자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퀘벡의 경제적 기반을 다짐

IV. 프랑스(France)

1. 예산·결산 등

2. 기타

□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3.23)

- 프랑스의 재무부(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장관, François Baroin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7%로 상향조정 함
- 올해 기업과 산업부문의 경기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유럽의 경기 전망 또한 밝아져 당초 하향수정했던(1%→0.5%)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밝힘
-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0.2%와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75%로 0.25%p 하향조정 함

V. 독일(Germany)

1.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정부, 2012-2016 중기재정계획 발표(3.21)

- (재정수입) 2013년 신규 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812억 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규모
- (재정지출) 2013년 재정지출은 3,007억 유로로, 2012년 3,127억 유로 대비 큰 폭(약 3.8%)으로 감소할 전망
-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신규 차입 제외) 간의 갭을 줄여나가 2016년에는 지출 3,093억 유로, 수입 3,082억 유로를 달성할 전망
- (신규차입)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신규 차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1억 유로 규모를 달성할 예정
 - 2013년 신규 차입은 11-15 계획대비 53억 유로(21.3%) 감소한 196억 유로로 예상됨

〈표 7〉 독일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안(2012-2016)

(단위: 10억 유로, %)

	2011	2012 (추경포함)	2013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14	2015	2016
재정지출(11-15계획)			311.5	309.9	315.0	
재정지출(12-16계획)	296.2	312.7	300.7	303.5	307.9	309.3
전년대비 증가율(%)		5.6	△3.8	0.9	1.5	0.4
조세 수입	248.1	249.7	256.5	268.0	276.6	287.3
세외 수입	30.8	28.2	24.7	20.9	21.0	20.8
신규 차입(12-16계획)	17.3	34.8	19.6	14.6	10.3	1.1
신규 차입(11-15계획)			24.9	18.7	14.7	

자료: 독일 재무부, Eckwerte des Bundeshaushalts 2013 und des Finanzplans bis 2016, 2012.3

[참고] FY2012 추가경정예산

- 독일 연방정부는 유럽 채무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87억유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 2013년 예정이었던 유럽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설립이 2012년 7월로 앞당겨지고, 유로존 구제기금이 5,000억 유로에서 7,000억 유로로 증액됨에 따라 독일의 추가적인 자국분담금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

<표 8> FY2012 추경예산

(단위: 10억 유로)

	기존 2012 예산	2012 추경 예산
지출	306.2	312.7
수입	306.2	312.7
· 조세 수입	249.2	249.7
· 세외 수입	30.9	28.2
· 신규 차입	26.1	34.8

주: 신규차입의 변화분 87억 유로 중 ESM으로의 금융거래분(Finanzielle Transaktion)이 86.9억 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함

자료: 독일 재무부, Regierungsentwurf des Nachtragshaushalts 2012, 2012.3

2. 기타

- 독일 연금급여 인상 및 납입금 인하²⁾
 - 독일 정부는 독일의 경기 및 노동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금년 7.1부터 연금급여액이 예상 증가율(1.9%)보다 큰 폭(동 2.26%, 서 2.18%)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3.12)
 - 연방통계청 및 독일연금보험연합은 최근 독일의 취업률 증가 및 임금인상 등을 동반한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독일 2천만 연금수령자들에 대한 연금급여액이 금년 7월1일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발표
 - 연금부담금은 이미 금년 초,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금 합계 총 26억 유로 감소

2) 자료: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deu.mofat.go.kr), 2012.3.12

VI. 그리스(Greece)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 달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4억 9500만 유로로 재정적자 목표치 8억 7900만 유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됨(3.21)
 - 2012년 1-2월 정부예산 순수입은 92억 5800만 유로로 목표치 92억 3900만 유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 한편 경상예산(ordinary budget) 순수입은 80억 6700만 유로로 목표치 82억 9900만 유로보다 부진하였음
 - 1-2월 정부지출은 97억 5300만 유로로 목표치인 101억 1800만 유로보다 3억 6500만 유로 낮은 수치

2. 기타

- 그리스 국채교환프로그램(PSI) 통한 부채탕감으로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20.5%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난 2월 24일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된 약 1772억 유로 국채를 모두 교환
 - 53.5%를 손실처리하고, 31.5%는 최대 30년 만기 장기 그리스 국채로, 15%는 2년 만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환 이행
 - 국제법에 따라 발행됐거나 국영기업이 발행한 그리스 국채 약 289억 유로의 교환 시한을 4월 4일까지로 연장

VII. 아일랜드(Ireland)

1. 예산·결산 등

□ 2012년 예산 통과(2.7)

- (재정 전망)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4년간 조세수입을 꾸준히 증가시켜, 2015년 재정적자가 433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Delta 8.6\%$ 로 전망

〈표 9〉 아일랜드 GDP대비 재정적자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GDP대비 재정적자	$\Delta 10.3$	$\Delta 8.6$	$\Delta 7.5$	$\Delta 5.0$	$\Delta 2.9$

(단위: %)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 Reform

- (예산 기초) 재정적자를 2015년 51억 유로까지 감축하여 SGP기준인 GDP대비 3%를 달성하고자 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고용, 정부정책 개혁 등을 주요 기초로 삼고 있음
- (세입 및 지출 계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세(소득세) 보다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확대하고 지출을 작년대비 19억 유로 감소한 558억 유로 달성 전망

〈표 10〉 아일랜드의 세입 및 지출 계획

세입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개인소득세율과 소득구간 및 법인세율(12.5%)은 동결 · 사회보장기여세: 저소득, 파트타임, 계절 근로자들의 면세 범위가 현행 연소득 4,004 유로→10,036억유로로 인상 · 부가세: 표준세율은 21%→23% 인상, 관광 부문의 경감세(9%) 동결 · 소비세: 담배세 25센트 증가 · 탄소세: 톤당 현행 15유로→20유로로 증가 · 자본세: 자본취득세율 (Capital Acquisition Tax)과 자본이득세율 (Capital Gains Tax)을 현행 25→30%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근로자 감축: 2015년까지 37,500명 (2008년 대비 12%)감축하여 총 282,500명을 달성하여 250억 유로의 인건비(2008년 대비 15%) 절감 효과 · 고용촉진기금 지원: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약 2천만유로 지원(6,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부처별 지출상한: 2012-14 동안 총지출을 약 31억유로 감축(사회보장 12억유로, 보건 지출 2억8천유로 감축)

2. 기타

- (경제전망)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마저 기존 전망 보다 0.2%p 하락하고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2012년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경제지표보다 소폭 하락
 - 실질 GDP 증가율은 약 1%로 기존 수준 유지, 경제성장률은 2012년 실질 GDP 기준으로 1.3% 달성 전망하여 2012년 예산안 전망 수치보다 0.3%p 감소

〈표 11〉 아일랜드 2011-2015년 경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Personal Consumption	-2.5	-1.0→ -1.3	0.0	1.0	1.2
Government Consumption	-3	-2.2	-2.2	-2.3	-2.1
Investment	-11	-0.8→ -1	3.2	4.6	4.8
Exports	4.6	3.8→ 3.6	4.5	4.8	4.8
Imports	1.6	1.9→ 1.6	2.8	3.4	3.5
GDP	1	1.6→ 1.3	2.4	3	3
GNP	0.4	1.0→ 0.7	1.7	2.3	2.3
Unemployment	14.2	14.0→14.6	13.4	12.8	11.6

자료: Monthly Economic Bulletin, 재무부(2012.3)

- (예산 절차 개혁)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바 있으며 예산의 절차를 개혁할 계획임
 - 재정지출의 상한설정 및 감시를 위해 예산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 중임

VIII. 이탈리아(Italy)

1. 예산·결산 등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MEF), 다년도(3년) 예산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3.12)
 - 다년도 예산편성 시, 지출의 증대를 막고, 지출예산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후적 감사를 통해 다년도 지출예산을 조정함
 - 재무장관의 승인 하에 예산조정 요구안과 일반정부 순차입금(net borrowing)을 고려하여 지출예산을 조정함
 - 지출예산의 근거나 그 세목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미납채무 및 대차대조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

2. 기타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2012년 2분기 최소 280억 유로의 국채발행계획 발표(3.26)
 - 제로쿠폰채권(zero-coupon bonds, CTZ) 90억 유로, 일반채권(regular bonds, BTP) 100억 유로, 변동금리채(floating-rate securities, CCTeu) 90억 유로를 발행할 예정임

IX. 일본(Japan)

1. 예산·결산 등

□ FY2012 잠정예산안 각의결정, 국회 제출(3.29)

- 2012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잠정예산을 편성
- 세입 총액 118억엔, 세출 총액 36,105억엔
 -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80억엔, 기타 수입 38억엔 규모를 기간 중 예상
 - (세출) 국채비 68억엔,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3조 6,105억엔 규모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이 3조 1,877억엔(보통교부세의 4월 개산 교부 실시를 위한 재원 3조 1,240억엔, 지방특례교부금의 4월 개산 교부 실시를 위한 재원 637억엔)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표 12〉 일본 FY2012 일반회계 잠정예산 세입·세출

(단위: 억엔)

구분	전년도 예산액 (당초)	2012년도 제출 예산액	2012년도 잠정예산액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409,270	423,460	80
2. 기타 수입	71,866	37,439	38
3. 공채금	442,980	442,440	-
(1) 공채금	60,900	59,090	-
(2) 특례공채금	382,080	383,350	-
합 계	924,116	903,339	118
세 출			
1. 국채비	215,491	219,442	68
2.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708,625	683,897	36,037
(內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등)	(167,845)	(165,940)	(31,877)
합 계	924,116	903,339	36,105
차감 세출 초과액	-	-	35,987

주: 1.세출초과액에 대해서는 국고의 자금운용상 필요에 응하여 재무성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함
2.계수에 대해서는 각각 반올림하여 끝수에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X. 포르투갈(Portugal)

1. 예산·결산 등

2. 기타

□ 신용등급 강등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Ba2 → Ba3) 강등하였음(2.14)
-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 Moddy's, S&P는 모두 정크 등급(투자부적격 등급) 부여함
- * (참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BBB-' → 'BB') 낮췄음(1.13)
- * (참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BBB-' → 'BB+') 낮췄음(11.24)

□ 국가부채 증가

- 2011년 5월 EU와 IMF로부터 3년간 총 780억 유로(약 114조5700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국내총생산(GDP)대비 106%였던 국가부채 규모가 2012년 3월 11일 현재 110%까지 높아짐
- 포르투갈 10년 물 국채금리는 구제금융을 받을 때 연 9%대 이었으나, 2012년 3월 13일 현재 연 13.71%대까지 상승하였음

□ 재정적자 증가

- 포르투갈의 올해 초 공공적자가 전년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3월 21일, 포르투갈 재무부 예산국은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의 핵심 공공적자(core public defricit)가 7억 9,900만 유로(10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

다고 밝힘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74,000만 유로 적자에 비해 거의 3배가량 늘어난 수준임

□ 분기 경제보고서, 포르투갈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

- 2011년 10월 -2.2%로 제시 되었던 포르투갈의 2012년 GDP 성장률 전망은 이번 분기 경제보고서에서 -3.1%로 하향 수정되었음
- 포르투갈 정부는 2012년도 경제가 3.1% 축소되고, 실업률이 13.6%에 이르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은 -3.0%라고 보고함

XI. 스페인³⁾(Spain)

1. 예산 및 결산

□ 2011년 예산집행 결과 발표(2.27)

- 공공부문(Public Administration)의 201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8.51%(약 913억 유로)로 목표치 6%보다 2.51% 초과

□ 재정적자 목표(Stability Target) 조정(3.13)

- 몬토로(Cristóbal Montoro) 재무장관은 상원의 2012년 예산 심의에 참석하여 재정적자 목표 조정에 대해 설명
 - 스페인 정부는 EU의 조정을 수용하여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5.8%에서 5.3%로 수정
-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s)에서 지난 2012.03.02에 재정적자 목표 GDP 대비 5.8%와 2012년 정부 비금융(non-financial) 지출 상한 1,185억 유로를 승인한 바 있음

2. 기타

□ 공공부문 재정기본법(Organic Law on Budgetary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내각 승인(3.2)

- 내각회의에서 재정기본법 초안을 승인하고(1.27), 국가최고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의 자문을 거친 후, 의회(Cortes Generales)에 법안 제출
- 재정기본법의 기본 목적은 1) 공공부문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2) 스페인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 3) EU에 대한 스페인의 의무(commitment) 강화에 있음

3) 자료출처: 스페인 경제재정부 영문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iciaseningles.aspx>

- 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공공채무(Public Debt) 도입
 -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에 GDP 대비 공공채무 60% 달성 목표
 - 연간 2% 성장률 혹은 순고용(net employment)을 달성할 경우 매년 부채비율(debt ratio)을 최소 GDP의 2%씩 감축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구조적 적자는 연평균 명목 GDP 대비 0.8%씩 감축해야 함
- 모든 부문(administrations)은 ESA 기준의 수지균형 혹은 흑자를 달성해야 하고, 지출 상한을 설정해야 함
 - 구조적 적자(structural deficit)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GDP의 0.4%내에서 관리

XII. 영국(UK)

1. 예산·결산 등

□ FY 2012-13 예산안 발표(3.21)

- (경제·재정 전망) 2012년 경제성장률을 가을보고서 전망치보다 0.1%p 증가한 0.8%로 전망함
 -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12-13에 GDP의 5.8%, FY2016-17에 1.1%임
 - 공공부문 순부채는 FY2012-13에 GDP의 71.9%, FY2014-15에 76.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FY2016-17에 74.3%로 하락할 전망
- 예산기조
 - 경기 안정화(A stable economy)
 - 재정건전화 실행, 복지 및 공공서비스 개혁, 금융 및 조세 개혁 등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간소화된 조세제도(A fairer, more efficient and simpler tax system)
 - 인적공제 증액,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50%→45%), 법인세율 인하(26%→24%), 소득세 감면한도 제한, 조세회피 방지 등을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조세 경쟁력 강화
 - 성장을 위한 개혁(Reform to support growth)
 - 국가 도로 관리 전략 개발, 초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투자, 항공우주기술 개발 지원 등 제도 개혁 및 인프라 투자
- (세입) FY2012-13 공공부문 경상세입은 전년보다 약 210억파운드 증가한 약 5,915억파운드로 GDP의 약 37.5%를 차지함
 - 전년대비 소득세 22억파운드, 법인세 12억파운드, 부가가치세 40억 파운드 증가
- (세출) FY2012-13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대비 감소한 6,834억파운드로 GDP의 약 43.4%로 예상됨
 - 우체국 연금 자산이전으로 인한 280억파운드 감소 효과 반영

-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부처별지출한도(DEL) 감축으로 총관리지출은 FY2016-17까지 GDP의 39%로 하락할 전망

〈표 13〉 영국의 경제·재정 및 예산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전 망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경제전망]						
· 실질GDP성장률(%)	0.8	0.8	2.0	2.7	3.0	3.0
· 소비자물가(CPI)	4.5	2.8	1.9	1.9	2.0	2.0
[재정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GDP %)	8.3	5.8	5.9	4.3	2.8	1.1
· 공공부문 순채무(GDP %)	67.3	71.9	75.0	76.3	76.0	74.3
[예산전망]						
· 경상세입 (GDP %)	570.4 (37.5)	591.5 (37.5)	622.5 (37.7)	658.4 (37.8)	692.0 (37.6)	735.3 (37.9)
· 총관리지출(TME) (GDP %)	696.4 (45.8)	683.4 (43.4)	720.0 (43.6)	733.5 (42.2)	744.0 (40.5)	756.3 (39.0)
· 자원(경상)지출	647.3	664.6	673.6	686.4	697.5	708.6
· 연간관리지출(AME)	303.6	320.0	325.3	340.1	356.8	370.7
· 부처별지출한도(DEL)	322.5	327.2	330.2	327.0	321.0	317.7
· 감가상각 제외	21.2	17.5	18.1	19.2	19.7	20.2
· 자본(투자)지출	49.1	18.8	46.4	47.0	46.5	47.7
· 연간관리지출(AME)	7.1	-25.0	5.6	5.7	6.1	6.5
· 부처별지출한도(DEL)	42.0	43.8	40.9	41.3	40.4	41.1

자료: HM Treasury, Budget 2012

2. 기타

□ 국가대출보증제도(National Loan Guarantee Scheme: NLGS) 시행(3.19)

- 중소기업의 은행 무담보 대출에 대해 약 200억파운드의 정부 보증 제공 예정
 - 연 매출 5천만파운드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며 NLGS 적용 시 1%p의 이자율 할인을 받아 저금리로 자금조달 가능

XIII. 미국(US)

1. 예산·결산 등

2. 기타

- 통화정책 보고서(Monetary Policy Report to the Congress), 의회에 보고(2.29)
 - 통화정책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가 담당하며 한 해에 2차례(semi-annual report) 의회에 보고함
 - 전반적인 통화정책(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 포함)과 경제전망, 그리고 최근의 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보고서와 FY2013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추정치는 유사함

- A New Economic Analysi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보고서(미 재무부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 합동 보고서) 발표(3.23)
 - 오바마 대통령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총 4,760억 달러 소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임